

구제역 대재앙 100일... 여전히 진행형

346만마리 살처분... 축산업 와해위기 공포의 침출수에 식수원 오염 불안

축산업 허가제·사육 마릿수 제한 등 근본대책 검토

소와 돼지 등 가축 약 346만마리의 살처분과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유출 공포를 몰고 온 구제역이 오는 10일로 100일을 맞는다.

전례없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축산업이 사실상 와해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식수원 위해 침출수로 오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어지는 등 구제역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기온상승과 함께 잠마방이 시작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식사육...안이한 초기대응...2차 환경오염 우려=경북 안동을 시발로 한 구제역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로 번져 돼지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 988만마리의 33.4%인 330만마리, 소는 335만마리중 4.5%인 15만마리가 각각 살처분됐다.

'구제역 대재앙'은 밀집사육 등 후진국형 사육방식과 안이한 초기대응이 빌미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실기(失期)한데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매뉴얼)의 미비에 따른 혼선이 겹치며 2차 환경오염의 우려까지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산법에 따른 적정 사육면적 지침은 6개월 미만 한우송아지 2.5㎡, 젓소송아지 4.3㎡, 한우성우 10.0㎡, 젓소 16.5㎡, 60kg이상 비육돼지 0.8㎡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우선시되면서 좁은 축사에 밀집사육이 이뤄지는 등 관련지침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친 것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지난해 12월25일 경북 및

경기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처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1~2주만 지나면 구제역은 잡힐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서너 차례 추가로 백신대상 지역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축산업 발전 계기로=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한국 축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장관 직속으로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발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농식품부는 특히 부화염, 종축염, 정액 등 처리업, 50㎡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선 허

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대상 가축은 소·돼지 등 우제류 5종과 닭·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7종 등 모두 12종이며,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환기·소독·분뇨처리시설을 적절하게 갖춰야 한다.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 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양식이 구제역에 취약하다고 보고, 대형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가축 질병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 매몰보상금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재임사각구 지원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나주 찾은 농림부장관 6일 오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박준영 도지사 와 함께 나주시 산포면 덕래리에서 겨울배추 공급부족을 채워줄 하우스 봄배추 및 고추 육묘 생육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나주=나명주기자 mjna@

월남전 참전용사·고엽제 환자 국가유공자 인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무위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소위원회도 설치하고, 국·공립 학교도 부패방지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北 주민 27명 송환 무산... 북측 전원송환 요구

정부는 지난달 5일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환 의사를 밝힌 27명을 4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려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6시께 판문점 북측 연락관이 전화를 걸어 주민 31명 전원을 무조건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구두 통지를 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하던 북한 주민 27명은 숙소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이들이) 나갔던 해상경로를 통해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납북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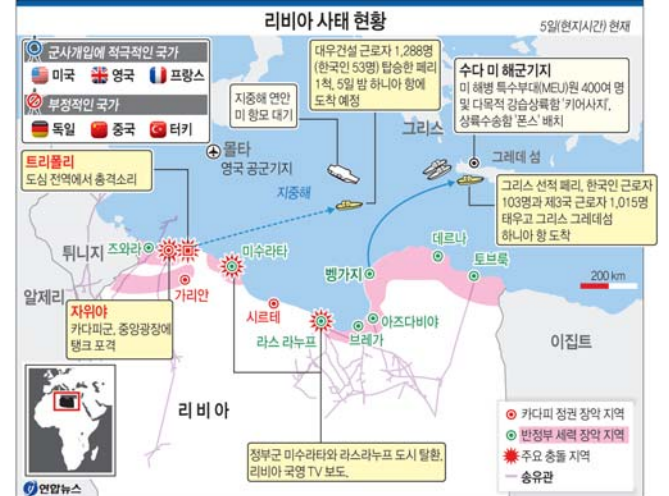
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납북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27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고 이들을 계속 보호하기보다는 빨리 돌려보내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말 동안은 판문점 연락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7일)에 송환에 필요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비아 곳곳서 친-반정부 세력 교전

자위야 탈환 공방전 가열... 사상자 속출 반군, 카다피 고향 시르테 향해 서진



수도권 도시인 자위야에서 5일 무아마르 카다피의 친위부대와 반정부 세력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리비아 곳곳에서 양측의 교전으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이번 사태가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카다피의 정예부대인 카미스 여단은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한 전략적 요지 자위야를 탈환하려고 전날부터 이 도시의 서부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공격 작전에 들어갔다.

카다피 친위부대는 이날 오전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이 도시의 안쪽으로 진격해 들어갔고, 반정부 시위대는 박격포와 자동화기로 맞섰다.

한 목격자는 "전투가 (자위야) 시내로 확대됐고, 15대 이상의 장갑차가 탱크와 함께 진입해 시내 전역에서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슬람 사원들은 이들 부대와와의 지하드(성전)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 간에 교전이 이어진 뒤 반정부 시위대 측은 유세프 샤한 대변인은 "그들(카다피 친위부대)이 오전 6시께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해 들어왔으나 우리의 시민들이 싸워서 물리쳤다"며 "우리는 현재 승리했

고,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이어 카다피 친위부대가 자위야에 병력을 다시 진입시켜 시내 중심가를 수복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등 이 도시를 둘러싼 전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자위야는 트리폴리의 서쪽 관문이자 정유 시설이 위치한 요충지여서 이곳을 탈환하려는 카다피 친위부대와 시위대 간의 전투가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이날 자위야 지역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알-아라비아 방송은 전날에만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고, 알-자지라 방송은 50명 이상이 숨지고 30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동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반정부 세력은 전날 동부의 환만 도시 라스 라누프에서 카다피 친위부대를 몰아낸 데 이어 소규모 마을 빈 자와드를 장악하고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를 향해 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성인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4일 금요일도회를 마친 150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카다피 체제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보안군과 충돌했다. 트리폴리 중심가인 그린(녹색) 광장에서는 리비아 국기를 들고 나온 카다피 지지자 수백 명과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고 알-아라비아 방송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동 '재스민 혁명'에 긴장한 北 김정일 관저 인근 탱크 집중 배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하야 등 중동국가들의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도 일어날 것을 대비해 관저 인근에 탱크 등 무기를 집중 배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관저 주변에 탱크 등 무기를 많이 갖다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6일 전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관저는 평양에만 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재스민 혁명'이 현재 북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없다"면서도 "재의 공판에서 근무하다 북한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을 우려해 엄중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최근 당의 성격에 '마르크스' 레닌당'에서 '김일성당'으로 바꿨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이 정보위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리비아 전역 '여행금지' 지정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오후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중동 급변사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어 리비아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급급적 이른 시일 내에 민통선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여행경보 상향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경보가 4단계로 격상된 뒤에도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에 대해서는 여권법에 의거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00여 명으로 줄었다. 외교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오늘 리비아에서 교민 철수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오늘 중으로 시르테에 있는 국민 15명이 그리스 선박으로 철수하면 잔류인원은 100여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민 100여 명은 중장비 등 현장관리를 위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현지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 한 당분간 리비아에 계속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최영함(4천500t급)은 4일 교민 32명을 태우고 지중해 물타에 도착했고 연료와 식자재 등을 보충한 뒤 트리폴리 외항에 복귀해 추후철수 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연합뉴스

**열심히 일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광고심의필 : 1091-0300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과도한 업무, 무한 경쟁압박,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간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특히 40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간장질환자의 60~70%가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되어 있으나, 알코올이나 약물, 비만 등도 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장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국제약품이 함께합니다.

손상된 간세포와 간조직을 재생하는 - Carduus Marianus Extract가 함유된 만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보조 치료제

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

리버비타 연질캡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기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제약품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13-2, 개빌/아케빌 TEL: 031-781-908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